

해양쓰레기 페스티로폼 ‘꼼짝마’

완도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환경소각기 도입 다음달 본격 가동...36명 바다환경 지킴이 투입도

완도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해양쓰레기 주범인 페스티로폼 처리를 위한 친환경소각기를 도입, 운영에 들어간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자연재해나 양식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스티로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소각기를 도입해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해양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페스티로폼 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페스티로폼 처리를 위해 노화읍에 친환경소각기를 설치하고 현재 시험가동 중이며 설비·제어 시스템 등 사전 점검을 마쳤다. 친환경소각기를 이용해 페스티로폼을 처리하는 것은 완도군이 처음으로, 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 2년여가 소요됐다. 완도군은 환경부의 대기환경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4차례 설비·보완 과정을 거

쳤으며 지난 5월 말 최종 합격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각 읍면 향포구나 선착장에 산적해 있던 페스티로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어 장기간 방치에 따른 2차 피해와 해양 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완도군은 노화읍에 이어 금일읍에도 친환경소각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친환경소각기를 본격 가동하면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해안가나 항포구 등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2개 읍면에 36명의 바다환경 지킴이를 투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

무안 남악신도시에 수영장 갖춘 체육시설 들어선다

354억 들여 3층 8000㎡ 규모 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수영장 등을 갖춘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체육시설 확충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조달청 온라인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삼향읍 남악리 일원에 총사업비 35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970㎡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한다.



체육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생존수영 체험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층은 수영장과 웨이크보드, 2층은 VR(가상현실)실과 생활체육조실, 3층은 다목적체육관으로 조성된다.

군은 17일 진행된 온라인심사를 통해 선정된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연지 당선작)를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후 2024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남악신도시 체육시설은 생활

체육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생존수영 체험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이용할

대흥사서 심신 치유하고 땅끝마을서 조개잡이 체험

해남시티투어버스

다음달 2일 운행 재개

해남군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해남시티투어버스 다음달 2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남시티투어버스는 단순관광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각종 체험에 스토리를 더한 힐링 여행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해남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운영을 중단했으나 다음달 2일부터 매주 금·일요일 시

티투어버스 운영을 재개한다. 하반기 해남시티투어버스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힐링을 주제로 해남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금요일에는 여름을 대표하는 수국꽃이 만발한 4est수목원 방문과 해남특산물인 고구마로 만들어진 더욱 유명한 고구마빵을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토요일 코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흥사와 한 주간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갈 수 있는 흑석산 치유의 숲 탐방으로 꾸며졌다. 이어 일요일은 대표 여름 관광지인 땅끝마을과

신나는 조개잡이 체험이 가능한 코스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해남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버스도 추가했다.

땅끝관광지, 4est수목원, 고구마빵 만들기 등의 코스로 이루어지며 계절별로 코스를 변경할 예정이다.

해남시티투어버스 이용요금은 광주출발 1만 8000원, 해남출발 1만 2000원(체험료 5000원 포함, 중식비, 입장료 별도)으로 이용고객에 한해 해남 특산품을 제공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2021년도 해남시티투어버스는 해남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 숨은 관광지 체험코스를 다양하게 추가·구성했다”면서 “시티투어버스를 통해 해남을 보다 편하게 찾고 해남의 맛과 멋을 느끼고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개테마파크 미니 동물원 인기

공작·미어캣·친칠라 등 보러 주말 하루 600여명 찾아



진도개테마파크 미니 동물원의 인기 동물인 미어캣. <진도군 제공>

진도개테마파크에 있는 미니 동물원이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2018년 4월 개장해 20여 마리의 동물이 있는 미니 동물원에는 주말의 경우 하루 500~6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주중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단체 방문이 줄을 잇고 주말에는 가족과 연인 등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관광객들은 공작, 비둘기, 오골계 등 새장 속으로 모이를 주는 등 자연체험을 할 수 있다.

“미어캣”과 “친칠라”는 아이들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진도개테마파크 야외공연에는 잔디밭과 화단, 연못, 정자 등이 조성되어 있어 주민 쉼터와 야외 학습장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미니 동물원이 규모가 작지만, 관광객들에게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광군, 새끼 대하 772만 마리 방류

영광군은 최근 칠산해역에 고소득 품종으로 알려진 새끼 대하 772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대하는 고단백, 무기질, 키토산 등 영양이 풍부하고 연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는 정착성 어류로 방류 효과가 높다. 짧은 기간에 어획이 가능해 가을

철 어업인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지난 5월 칠산해역에 새끼 대하 773만 마리를 방류했다. 7~8월 새끼 보리새우 300만 마리와 새끼 꽃게 56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칠산해역에 고소득 품종 새끼 대하 772만 마리를 방류했다. <영광군 제공>

목포시, 7개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30일 종료

목포시가 유료 공영주차장의 무료 운영을 오는 30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7개소를 지난해 3월 12일부터 1년 3개월 동안 무료로 개방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장기주차할 일삼는 압제족이 증가해 특정인의 사

유화가 발생하고, 회전율이 저하되면서 주차장 이용객의 불만이 가중돼 오는 30일까지만 무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호남, 중앙, 원형1, 원형2, 동아, 남교, 행정타운 등 7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60분 무료 후 30분마다 500원씩 증전과 동일한 요금이 부과(대형차량 제외)된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